조계종 문화재청

사전 협의체 구성… 정책 소통 나선다

나선화 청장, 3월 6일 자승 스님 사과 방문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으로 불거진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이 사과와 재발방지, 사전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이뤄진 것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벌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나 청장은 "한국 문화재 중 70%가량이 불교 문화재이고, 이 안에 담긴 정신이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가치를 가진다"면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함께 협의해 관리한다면 앞서 발생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자리에서도 나 청장은 "불교계를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체인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구성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해 실시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이 연구용역은 사찰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해당 사찰과 조계종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관련 기사 본지 1131, 1132호〉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문제 사실을 인지한 후 문화재청 항의방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청의 행정 절차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문화재청장의 사과 방문과 사전협의체 구성은 조계종의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특히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협약 통해 협의회 첫 구성해
양 기관 실무진 회의 정례화
제도화 통해 '不通행정' 방지
"실효성있는 성보 정책 기대"

협약에 따라 구성된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는 양 기관의 추진하는 문화재 행정의 소통과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 관련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조계종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단과 문화재청에서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협의체 구성은 유지돼 일관적인 정책 수립도 용이해졌다.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는 조계종 측에서 문화국장이 협의단장으로 차 · 팀장급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정책국장이 협의단장으로 과장 · 사무관급 각각 4~5명이 참여한다. 협의회가 논의하게 되는 분야는 불교문화재의 보존 · 수리 · 도난 · 방재 · 활용 · 홍보 등이다. 협의회 회의는 2, 5, 8, 11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장의 사과방문과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조계종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이번 협의회 구성은 후임 청장 등이 부임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 정례화했으며, 종단과 정부가 합리적 협력을 통해 문화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면서 "협의회는 종단과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이 불교문화재 현안을 논의 · 협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나 청장의 예방에는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 스님, 문화부장 정현 스님, 문화국장 용주 스님,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박한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유산 정책협의회 협약 주요 내용

구 성 원	조계종 : 문화국장(단장), 차 · 팀장(회원) 4~5명 문화재청 : 정책국장(단장), 과장 · 사무관(회원) 4~5명
논의 분야	불교문화재 보존 · 수리 · 도난 · 방재 · 활용 · 홍보
회의 시기	2, 5, 8, 11월 분기별로 정례화

부루나 후예들, '설법제일' 자웅 겨룬다

조계종 교육원, 6월 1일 제1회 학인 설법대회

조계종 학인 스님들이 '설법제일' 의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기본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겨루는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 를 개최한다.

학인 설법대회는 설법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설법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 학인들의 전법포교 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파악해 참신한 설법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부터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필수 과목으로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신설했다.

학인 설법대회는 참가자 1인이 8분 이내로 준비해온 설법을 시연해 스피치 능력과 불법 전달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법 주제의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내용으로 설법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는 각종 소품 또는 기자재(파워포인트 등)를 활용하거나 보조 참여자의 조력을 받아 설법 무대를 구성할 수 있다.

대회는 오전 예선과 오후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에서 심사점수가 높은 12명의 스님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 심사에 따라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본선 심사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사위원단 외에 청중평가단(스님 및 재가자)을 구성해 현장투표방식의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설법 대회 참여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본선대회는 모든 대중이 참여 관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9일 대선주자인 이재명(왼쪽) · 안희정 후보를 각각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탄핵심판 앞서 대선주자 조계종 예방

자승 스님, 3월 9일 이재명 · 안희정에 국민화합 당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조계종을 예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월 9일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이 시장은 올해 조계종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에 공감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조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국가안팎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예방했다"고 인사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월간 〈불광〉, 문체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불교계 잡지 월간 〈불광〉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월간 〈불광〉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콘텐츠잡지 108종 중 유일한 종교계 잡지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기사(콘텐츠) 내용과 편집 디자인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시사경제교양 △여성생활정보 △스포츠취미레저 △문화예술종교 △과학기술 △산업농수축산 △교육학습 △지역 등 8개 분야서 총 108종을 선정했다. 현재 국내엔 약 4,000종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이번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으로 월간 〈불광〉은 문체부 명의의 2017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증 및 로고를 사용하며, 문화소외지역 및 관련 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원 스님 유고집 〈일체 민중이~〉 발간

추모사업회 준비위 발간… 행장 · 유언 · 일기 등 수록

"사랑하오. 민중이 승리하길, 촛불이 기필코 승리하기를 바라오"란 유언을 남기고 소신공양 한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유고집이 발간됐다.

정원 스님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는 3월 7일 정원 스님 유고집 〈일체 민중이 행복한 그날까지〉를 발간했다.

유고집엔 정원 스님의 행장과 생전 스님이 SNS에 남긴 글, 일기, 저서 〈새벽으로 가는 길〉서 발췌한 시 등이 수록됐다. 세부목록은 △1장 유언 △2장 일기 모음 △3장 법성게 강의록 △4장 투쟁시 연재 △5장 유작시 모음 △6장 추모시 및 추모사로 구성됐다.

정원 스님의 속가 동생 서상원(한경대 행정학 교수) 씨는 이날 발간 기자간담회서 "정원 스님을 알리기보다 스님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기리는 작업으로 유고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죽음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책에 수록된 '생에 대한 집착이 이리 집요한지 몰랐다' 는 스님의 말 등에서 스님의 생전 고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서 씨와 정원 스님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정원 스님 선양 사업을 지속 전개한다. 서울시에 요청해 정원 스님이 소신공양 한 장소인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한편, 추모사업회 준비위를 정식 추모사업회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유고집 수익금은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과 양심수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유고집 발간 하루 전인 6일 불교사회연구소는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종교의 사회참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경전에 나타난 소신공양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며 "정원 스님의 분신은 일반적 자살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자신의 육신을 던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한 대자비의 실천이었다"며 "종단을 비롯한 여러 불교단체들은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기구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통도사 방장선출 산중총회 구성원 461명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3차 회의를 열고, 15일 열리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후보자 선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자격이상자와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등을 제외한 총 461명의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예정된 화엄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17일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FCA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모집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의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 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잠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 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동양미래학자 / 미래예측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학위원장
RTN부동산TV '풍수야 놀자' 토크특강 진행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동양철학박사(풍수전공) / 현공풍수지리 연구소장
전남대, 조선대, 대전대 외래교수 역임
서라벌대 풍수명리학과 외래교수 역임
Earist University 동양철학전공 주임교수 역임
대만 종의명 선생 현공풍수 사사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도시계획학박사 /
(사)정통풍수지리학회 명예이사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동방대학원대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교수
국민대 평생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전임교수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의학박사. 자연치유학박사 / 탑성형외과 원장
고려대 의대,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동방대학원 미래예측학과 겸임교수
동방대학원 풍수지리 최고위 주임교수
청운풍수지리학회 회장 / 강남대, 공주대,
서라벌대 풍수지리학 교수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명예 철학박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공주대학교 교수 / 서라벌대 풍수명리학과 교수
동방대학원 풍수지리 최고위 책임교수
용인대학교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교수
법왕불교대학 명예학장 / MBC KBS SBS
MBN TV조선 다수 출연


전임교수 세준스님
철학박사 (원광대 기공기학전공)
포천중문의과대학보건대학원 외래교수
한국기공학회 총무이사
숲 치유명상심리연구원 원장
동국대 인테리어풍수과정 지도교수

■ 대 상 : 풍수지리 관심자, 부동산 관계자. 인테리어 관계자, 행복 설계사, CEO, 관리자, 인사담자 풍수지리 왕초보부터 최종정리를 희망하는 고수까지
■ 입 학 : 1학기 2017년 4월 3일(월), 2학기 2017년 7월 10일(월) 학기당 15주, 2학기 과정
■ 수강료 : 학기당 1,500,000원 / 1, 2학기 일시 등록 2,40,0000원, 교수추천 및 동문 : 10% 장학금
■ 자격증 :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소정의 절차)

※문의 : 동국대 FCA
사무국 02-3443-4984